

선도농가를 찾아서

겨우내 쫄쫄 얼어붙은 땅 속에서 새싹을 튀우기 위한 열망으로 봄을 준비하듯 매서운 UR 한파에도 꾀꿉하게 땅을 지키며 내일을 열어가는 농군이 있다.

지금까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는 속단을 수입개방화 대응작물로 육성시켜 보겠다는 의욕 하나로 시험재배를 시작한 김동운씨(62세).

원래 충남 금산이 고향인 김씨는 30여년전 이곳 무주로 이주해 오면서부터 약초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생약협회 무주군 공관장장으로 있으면서, 평

수입개방화 대응작물로 육성 보급해 나갈계획

소 우량종자 보급에 관심을 갖고 시험재배를 해오던 김씨는 지난 93년 덕유산에서 속단뿌리를 채취해 시험삼아 집안 텃밭에 옮겨 심었다. 이듬해 봄 싹이 돋아났고, 작년 가을엔 종자도 채취해 우선 1백평 밭에 파종했다.

속단은 현재 덕유산 지리산

속단 시험재배한 김동운씨 (62세)



◇속단시험재배포장앞에서 김동운씨와 부인 서문순씨(57세).

등지 7부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생되는 약초로 주로 봄 가을에 소량 채취돼 오고 있지만 인력난이 극심한 농촌에서 그나마 생산량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대로 가다간 국내산 속단 종자마저 멸종될지 모른다는

법도 터득하게 되리란 것이 또 그의 생각이다.

속단 외에도 지금까지 백출하수오 지모 등을 묘로 생산, 보급에 힘 써온 김씨는 『이번 시험재배에 성공하면 내년 봄이나 가을 썬엔 종자를 채취해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약조건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앞장서 새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이기에 『내가 짓고 있는 약초농사를 아들 대에 까지도 물려줄 생각』이라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熙〉

지황 계약재배를 마치고

우리 완도는 육지와는 기후, 토질, 주민의식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작목의 도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더욱이 바다가 생업 지역인 주민의 의식면은 그 옛날 김, 미역이 잘된 시기에 생활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근검절약정신이 상대적으로 아쉽고 바다와 인연이 없는 순수 농촌지대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농업을 지탱해 오고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현실인데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입되다 보니 그 어려움이 더하고 있다.

이같이 소득이 낮은 농촌에서 다소라도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목을 찾다보니 생산비용의 부담이 덜하고 밭의 주작물인 보리, 고구마 보다 더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지황이 그 중 적합한 품목으로 여겨졌다. 한국생약협회의 협조로 34농가(3ha)를 중심으로 약초 작목반을 구성,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가을에는 평가회후 약초시험장, 선진농가의 현지 견학을 통해 상호정보교환을 하기도 했다. 한편 본 지도소는 지황재배의 성공을 위

안타까운 마음에서 속단 시험재배를 하게 됐지요』

김동운씨의 말이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재배되고 있는 곳이 없고 재배기술도 전무한 상황인지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까지의 약초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재배를 해 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재배



김 용 배 소장 <전남완도군 농촌지도소>

고구마 보리 등 보다는

수확면에서 월등

해 종근대 일부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였다.

3월에 종근을 인수하여 종자 소득을 마친후 포장에 식재하였던 바 모든 포장의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으나 8월에 접어들어 가뭄과 무더위가 계속되는 동안 뿌리썩음병이 많이 발생하여 여러종류의 농약을 살포하였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주율이 높았다. 여러차례의 생육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지하 30cm까지 뻗어있어 수확작업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굴취기를 공급하여 수확작업의 능력을 올리도록 하였으나 점질토양은 굴취기 보다는 소형 포크레이인이 작업능률을 더높이기도 했다. 수매는 지난12월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한국생약협회 조만식 기획실장의 1명이 담당하여 48%수매로 10ha 당 99만원이 조수입을 올렸다. 수매를 마친후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굴취작업이 어려운 점질토양지대는 재배가 곤란하며 △평당 주수확보는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뿌리썩음병 중점방제와 △믿을수 있는 수매회사와 계약재배를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사항을 개선하여 중점보강한다면 지황은 보리, 고구마 수확보다는 더 높은 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으로 올 96년에는 재배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토천궁 하락세, 일천궁 오름세”

구기 근당 8천~8천2백원 선까지 거래되던 충북청양 구기자 도매시세가 7천8백~8천원 선으로 다소 내렸다. 전남 진도산은 근당 8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천궁 토천궁 시세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근당 1만원 선이던 토천궁이 지난달 7천5백~8천5백원 선에 거래되다 최근 6천~6천5백원 선으로 툭 떨어졌다. 반면 일천궁은 지난달 3천6백원 선보다 다소 오른 4천1백원선이다.

당귀 지난해 큰 폭으로 시세 하락한 품목중의 하나. 지난달까지만 해도 근당 2천2백~2천5백원 수준이던 당귀값이 조금 오른 2천8백~3천2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일당귀는 근당 2천3백~2천5백원 선.

오미자 오름세를 보이는 듯 하던 오미자 시세가 지난달 거래되던 1만3천~1만3천5백원 선보다 내린 근당 1만2천원 선이다.

전라북도 장수군이 주산지이며 무주에서도 매년 2만여근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생근으로 근당 2천5백원 선에 출하되기도 한다.

강활 햇것이 출하돼 나오면서 계속 하락세다.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근당 4천원 선에 경북 영양지역



에서는 근당 3천6백~3천7, 8백원선에 산지거래 되고 있다.

길경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길경 근당 도매시세는 통으로 6천~6천5백원 선. 지난달 5천5백원 시세 보다 다소 올랐다.

택사 3~4년 동안 시세하락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함으로써 국내 택사재배면적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그 영향인지 한창 햇것이 출하되 나오는 시기인 요즘 택사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3천~3천3백원 선이다.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국내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치자 큰 폭으로 떨어진 치자값이 중저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근당 7천5백원 선까지 거래되던 치자가 3천5백원 대로 폭락후, 현재 3천3백~3천5백원선에서 보합세 이루고 있다.

황기 시세변동에 심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몇 안되는 품목 중 하나. 년수에 따라 굵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값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시중거래되고 있는 황기 근당 도매시세는 1년근이 8천원 선, 3년근이 1만2천~1만7천원 선, 6년근이 2만7천~3만원 선으로 보합세이다.

“택사 시세 다소 상승, 황기 보합세”